

# 家計의 經濟的 安定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Financial Stability of Household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黃 德 旬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Duck Soon, Hwang*

### 목 차

I. 서 론	IV. 결과의 해석
II. 관련 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 ABSTRACT =

Financial stability of households is the basic and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quality of life. It affects emotional, psychological, mental and social aspects of family, personal development and family healths etc.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ata on financial stability of households.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466 households in Kwangju area were analyzed. As statistical methods Frequency, Percentile, Anova, Duncan-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 :

Education, job status, housing tenure type, numbers of income source, assets income, and income flexibi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financial stability. Especially, numbers of income sources has most important effect.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inancial stability and economic pressures, mental healths, financial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coping behaviors were revealed respectiv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inancial stability of household is severely considered. To be financially stable, providing various income sources is more desirable than having regular and fixed income.

\*이 연구는 1988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일반과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I. 서 론

家庭의 궁극적 목적은 가족원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며, 家族 價値의 實現을 위하여 機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가족은 그들의 有用可能한 모든 資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관리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생활에는 최소의 費用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제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마다 필요한 자원이 항상 충분히 주어진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가정마다 그들에게 유용가능한 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용한 자원의 확보, 조달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변화의 원인은 가족원의 신상변화, 사망, 질병, 각종 사건 등과 같이 가족 내적인 것도 있고, 경기변동, 산업기술의 발달, 국제정세의 변화, 법률제도의 변경과 같은 가족 외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가족은 목표달성의 방향과 수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가족원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가정은 늘 안정된 상태에서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어느 가족에게나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고,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은 영속적인 집단이므로, 주어진 경제적 여건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획득하는 것 못지 않게 지속적인 획득이 장기적인 발달의 견지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恒常性을 유지한다면 가족은 장기적으로 일관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족은 변화와 함께 구심점을 잃을 수도 있다. 오늘날 각종 산업의 발

달은 가족의 기능을 거의 대행해 주고 있고, 가족은 교환을 통해 이를 구매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하게 되는 구매능력의 향상과 일정한 수준의 유지는 곧 가족의 복지 실현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할수록, 가정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가계의 경제적 안정이라고 본다. 가족이 갖는 경제적 상황의 일관된 특성, 즉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족의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가족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최근에 미국의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의 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환경은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개념적 체계수립을 위하여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경제적 안정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재정과 관련되는 몇 개의 생활영역(경제적 압박감, 정신건강, 재정만족, 생활만족, 대처행동)에서 검토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같은 목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둘째, 경제적 안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셋째, 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간의 관계

이 연구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 II. 관련 연구

### 1. 經濟的 安定的 概念

Modigliani와 Dusenberry는 상대소득가설에서 소비수준은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증가와 저축증가가 일정하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저축의 감소가 더 크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서 과거 최고 소득수준에서의 소비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계가 주어진 경제 조건하에서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가계가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안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개념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학자간에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다.

Kahne, Reno와 Grad에서 처럼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 즉 소득수준, 소득의 규칙성, 소득자원의 다양성, 부양자 비율을 언급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이종혜, 1993), 질병·사고와 같은 재정적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 은퇴후 적절한 재정자원의 확보로 보기도 하며(Davis와 Helmick, 1985), 현재 경제상태의 지속(Kim, 1991)으로 보기도 한다. 김연정(1991)은 재정복지의 하위개념중의 하나로 재정 안정도(financial security)를 재정적 위협에 대응하는 경제적 수준, 은퇴기에 대비한 재정적 안정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정도 다양하다.

임정빈과 고보선(1992)은 가계소득의 적정도와 소비지출비목에서의 경제문제 경험 빈도를 합하여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 김경자(1993)는 생활사건의 유발로 수지균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소득만으로는 반드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곤경에 대처하여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정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중지되었을 때 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소비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조작하였다. 이것은 비근로소득 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종혜(1993)도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가계가 현재 보유한 순자산을 처분하여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된 연금수준으로써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전자산을 처분하여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어찌보면 무의미한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가계소득은 원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되는데(이기춘, 1991)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은 소득당사자에게 더 이상 소득을 갖을 수 없는 중대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는 단순히 가계소득의 중지로 그 성격을 국한시킬 수 없다. 발생사건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건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자면 소득이 중지된 상태에서는 기존 재산의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산이 향후 소비생활의 기금으로 쓰여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소득의 경우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라는 것은 所得源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재산 자체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을 현금화하는 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소비수준 또는 생활수준,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영역으로써 경제적 안전(Economic security)수준의 비교척도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은 '일정한 경제적 생활수준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적 상태가 변화할 때 가족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불안이 형성될 것이다.

Voydanoff(1988)는 경제적 안정이 깨어진 상태를 경제적 불안상태(Economic Distress)라고 보았고, 산업화로 인한 기술의 발달, 경영합리화, 노동시장에서의 국제경쟁 등이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저하 등이

경제적 불안전감(economic insecurity)을 가중시킨다고 보아서 경제적 불안의 측정도구를 소득과 고용에 관한 주관적, 객관적 차원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일정한 수준의 가계재정상태가 지속되어 가족원이 이를 불안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경제적 불안의 역점수로서 경제적 안정을 측정한다.

2. 經濟的 安定이 家庭生活에 미치는 影響

연구결과들은 경제적 안정이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한 생활만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족원의 사회적 적응,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행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Voydanoff & Donnelly, 1989).

이기춘(1969)은 연소득액의 증감, 저축, 차입금 정도 등으로 경제적 안정도 지표를 구성하였고 이것이 가정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종혜(1993)는 경제적 안정도가 재정만족도에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Conger, Elder, Lorenz와 Conger등(1990)의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 곤란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경제적 상태 변화를 들고 있는 연구들(Liker & Elder, 1983 ; Hafstrom & Dunsing, 1973 ; Hira, Fanslow & Titus, 1989 ; Voydanoff, Donnelly & Fine, 1988)이 있고,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 실업이 미치는 영향들을 밝힌 연구(Larson, 1984)도 있다.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사건들이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지적해 준다. Elder, Nguyen과 Caspi(1985), Duncan과 Rodgers(1988), Harold-Goldsmith, Radin과 Eccles(1988), Lemper와 Simons(1989)는 경제적 곤란이 부모양육태도, 방식등을 통하여 자녀에게 평생토록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Pett와 Vaughan-Cole(1986), Demo와 Acock(1988), McAnahan과 Booth(1989)는 편모 또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이혼 이후 파생되는 경제적 곤란이 자녀에게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Voydanoff등은 경제적 불안이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 負的 相關이 있다고 하였고(1988), 정신건강에 負的 影響을 주며 대처행동과 正的 關係에 있음을 밝혔다(198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경제적 안정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경제적 안정은 가계재정과 관련된 심리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안정이 깨어질 경우 이에 대처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정과 관련된 심리 특성 중 경제적 압박감, 정신건강,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특성인 대처행동을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으로 정의하여 경제적 안정과의 관계를 검증하기로 한다.

III. 研究방법

1. 調査道具

조사도구는 선행관련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로서 구성내용은 인적사항에 관한 10 문항과 경제적 압박감 22문항, 정신건강 15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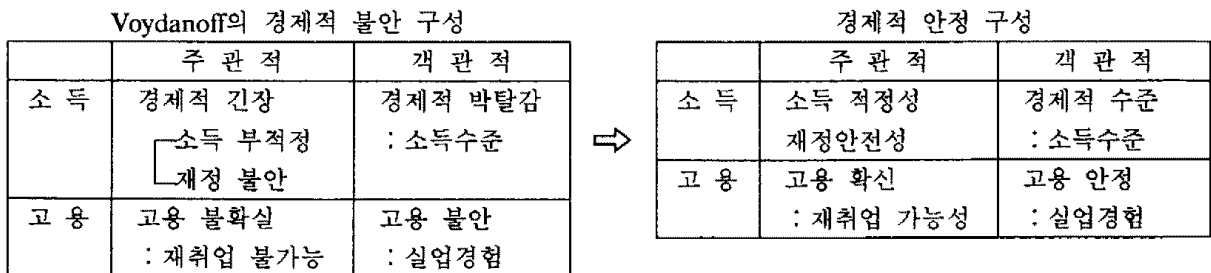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적 안정 척도의 구성.

재정만족도 7문항, 생활만족도 1문항, 대처행동 16문항, 가계소득 및 고용에 관한 9문항등이다. 질문지는 가정관리학과 교수 4인이 두차례에 걸쳐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문장의 표현 및 문항배치를 검수하였다.

척도 및 변수들의 구성내용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안정

Voydanoff와 Donnelly의 경제적 불안 척도(1989)를 바탕으로 소득관련, 고용관련 질문으로부터 재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득적정성(4점), 재정안전성(4점), 소득수준(8점), 고용안정성(4점), 재취업가능성(4점)으로 5점~24점이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2$ 이다.

### 2) 경제적 압박감

임정(1988), 이성림(1990), 배순영(1991)의 척도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재정상태 때문에 받게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계비목별로 세분화하여 총 22문항이다. 5점 likert형 질문으로(최저22점, 최고110점)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 된다. 신뢰도는 .95이다.

### 3) 정신건강

Dohrenwend et als(1980)의 Psychiatric Epidemiology Research Interview(PERI)에서 Voydanoff(1989)가 추출하여 작성한 척도로서 불안과 우울증세에 관한 15문항으로(최저15점, 최고45점)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증상들을 덜 경험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6이다.

### 4) 재정만족도

Hira등(1989)의 재정만족도를 보완한 5점 likert형 질문으로(최저7점, 최고35점),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상태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9이다.

### 5) 생활만족도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정도를 5점 얼굴 척도로 측정하였다.

### 6) 대처행동

Voydanoff등(1989)이 경제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가계재정관리적 행동으로 선정한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한 16문항(최저16점 최고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57이다.

### 7) 인적사항

연령은 가구주의 만 나이를 의미한다. 가족원수는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원이며, 가정생활주기의 단계는 자녀의 나이, 학력과 결혼한 자녀를 감안하여 연구자가 판단하였다. 주거소유형태는 자가소유인 경우 4점, 독채전세에 3점, 일부전세에 2점, 월세방에 1점을 주었고, 학력은 가구주의 학력이다. 직업지위는 가구주의 직업으로서 서열점수화하여 무직 0점, 생산·서비스직이 1점, 사무·기술직 2점, 전문·관리직 3점으로 재구성하였다.

### 8) 소득관련 변수

소득수준은 50만원 단위로 8단계로 조사하여 이를 4단계로 재조합하였으며, 소득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정도를 묻는 소득정도와 재정상태에 대한 안전 정도를 묻는 재정안전도는 각기 4단계로 질문하였다. 소득자수와 소득의 원천수를 조사하였고,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재산소득의 유무를 추출하였다.

### 9) 고용관련변수

과거 3년동안 가구주가 실업한 경험을 조사하여 없다 4점, 1번있다 3점, 2번있다 2점, 3번이상 있다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안정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 가구주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향후 3년 내에 재취업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더 나은 직장이나 직업이 가능한 경우 4점, 지금 정도가 가능한 경우 3점, 뭐든 가능하리란 정도에 2점,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실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적음을 나타낸다.

## 2. 調査時期 및 對象

선행연구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1989년 6월과 1991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질문지구성의 틀을 잡았다. 본조사는 1993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라남북도의 도시에 거주하는 정상가계를 대상으로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07부를 회수하였고,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한 466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3. 資料分析方法

자료의 분석은 PC-SA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하였다.

# IV. 結果의 해석

## 1. 調査對象者의 特性

### 1) 인구경제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소득관련 특성

표 1에서 보듯이, 단독소득자 가계가 53.2%이며, 소득의 원천이 1가지인 가계가 64.6%인 점으로 보아 가족원이 동일 소득원에 종사하고 있는 가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을 갖는 가계는 35.4%이며, 재산소득이 있는 가계는 24.5%이다. 69.5%의 가계가 월 평균 150만원이하의 소득을 갖는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가계는 62%이지만 항상 같은 액수로 유입되는 가계는 약 22.1%이며, 20.8%는 소득이 항상 다르다. 소득이 살아가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계가 56%이며, 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가계는 47.3%이다.

### 3) 고용관련 특성

84.3%의 가계가 실업경험이 없어서 고용에 대해 안정적이며, 51.3%는 실직시 지금 정도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고 있다.

## 2. 經濟的 安定과 그 影響 要因

### 1) 경제적 안정 수준

표 2에서와 같이 총 24점의 경제적 안정점수에서

평균 14.28점으로(100점 환산시 48.8점) 경제적 안정은 보통이하이다. 하위 구성요소별로 보면 주관적 소득지표인 소득적정성이 2.38점, 재정안전성이 2.53점, 합하여 4.91점, 객관적 소득지표인 소득수준이 3.25점으로 소득에서는 주관적 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나며, 고용에서는 객관적 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취업자의 경우 되도록 직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실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2) 변수에 따른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은 학력, 직업지위, 주거소유형태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전문직일수록 안정성이 있는 것( $P < .001$ )으로 나타나서 교육이 고용과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주거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소유한 경우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가족원수, 가정생활주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생활주기의 형성기와 미취학아동기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

소득자수가 많을수록 안정성이 높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소득원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원이 다양할수록 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위험분산주의를 소득원에 적용하여야 함을 지적해준다. 이것은 되도록 여러 가족원이 소득을 갖도록 하되 소득의 원천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가 안정적이므로( $P < .001$ ) 재산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득의 정기적 유입여부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나 소득액의 유동성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 $P < .001$ )를 보인다. 이는 정해진 시기에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 유동적인 소득의 유입이 오히려 생활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득시기와 액수의 고정보다는 매 회계기에 유입되는 총체적인 소득의 크기가 경제적 안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암시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격 (N=466)

	변 수	집 단	N(%)	변 수	집 단	N(%)						
	인구 경제 사회 학적 특 성	연령	-35세	43(9.2)	가족원 수	2인 이하	21(4.5)					
-40세			63(13.5)	3인		33(7.1)						
-45세			161(34.6)	4인		144(30.9)						
-50세			130(27.9)	5인		154(33.0)						
51세-			69(14.8)	6인 이상		114(24.5)						
학력		중학교이하	114(24.5)	직업 지위	무직	9(1.9)						
		고등학교이하	199(42.7)		생산, 서비스직	220(47.2)						
		대학이상	153(32.8)		사무, 기술직	173(37.1)						
가정 생활 주기		형성기	6(1.3)	전문, 관리직	전문, 관리직	64(13.8)						
		미취학아동기	14(3.0)		주거 소유 형태	자가	342(73.4)					
	초등교육기	52(11.2)	전세독채			49(10.5)						
	중등교육기	257(55.1)	전세(일부)			54(11.6)						
	대학교육기	103(22.1)	월세			21(4.5)						
경제적회복기	34(7.3)											
소득 관 련 특 성	변 수	집 단	N(%)	변 수	집 단	N(%)						
							소득자 수	1인 이하	248(53.2)	소득 정기성	정기적	289(62.0)
								2인	195(41.9)		부정기적	177(38.0)
								3인	20(4.3)		소득액 유동성	항상 같다
	4인	3(0.6)	대체로 같다	266(57.1)								
	소득 원천 수	1가지	301(64.6)	적정도	늘 다르다	97(20.8)						
		2가지	117(25.1)		소득 적정도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57(12.2)					
		3가지 이상	48(10.3)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	204(43.8)					
	재산소득 유무	없음	352(75.5)	안전도		어렵지 않은 편이다	176(37.8)					
		있음	114(24.5)		전혀 어려움은 없다	29(6.2)						
	소득 원천별 가계 유형	근로소득가계	184(39.5)	재정 안전도	전혀 보장이 안되므로 대단히 걱정된다	31(6.7)						
		재산소득가계	3(0.6)		걱정스러운 편이다	189(40.6)						
		사업소득가계	112(24.1)		별 걱정은 없다	213(45.7)						
		이전소득가계	2(0.4)		걱정이 없다	33(7.1)						
	소득 수준	종합소득가계	165(35.4)									
-100만원		161(34.5)										
-150만원		163(35.0)										
-250만원		98(21.1)										
	그 이상	44(9.4)										
고 용 관 련 특 성	변 수	집 단	N(%)	가 구 주 실 업 경 험 (고용안정성)	3번 이상(1점)	15(3.2)						
					2번(2점)	9(2.0)						
					1번(3점)	49(10.5)						
					없음(4점)	393(84.3)						
	가 구 주 실 직 시 재 취 업 가 능 성	전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 같진 않다(1점)	96(20.6)									
		뭐든지 가질 수 있을 것이다(2점)	131(28.1)									
		지금 정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3점)	212(45.5)									
		지금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4점)	27(5.8)									

3) 경제적 안정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갖는 변수로 학력, 직업지위, 주거소유형태와 소득원천수, 재산소득유무, 소득액유동성이

추출되었다. 이들 변수가 경제적 안정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의미있게 나타나 이들을 중다회귀분석하였다. 주거소유형태와 직업지위는 서열점수로

표 2. 경제적 안정 수준

	주관적 지표<12점>		객관적 지표<12점>		
소득	소득적정성 2.38 재정안전성 2.53	4.91(48.5)	소득수준	3.25(32.1)	8.16(39.7)
고용	재취업가능성	2.36(45.3)	고용안정성	3.76(92.0)	6.12(68.7)
		7.27(47.4)		7.01(50.1)	14.28(48.8)

\*( ) 속은 100점 환산시 점수로(점수-최저점)×100/(최고점-최저점)

표 3. 변수별 경제적안정점수

변수	집단	N	M	D	변수	집단	N	M	D
학력	중학교이하	114	13.04	c	연령	-35세	43	14.11	a
	고등학교이하	199	14.13	b		-40세	63	14.00	a
	대학이상	153	15.39	a		-45세	161	14.48	a
	F값		22.81***			-50세	130	14.09	a
				51세-		69	14.53	a	
직업지위	무직	9	9.77	c	F값			0.62	
	생산서비스직	220	13.95	b	가족원수	3인 이하	54	14.07	a
	사무, 기술직	173	14.00	b		4인	144	14.43	a
	전문, 관리직	64	16.82	a		5인	154	14.55	a
F값		28.07***		6인 이상		114	13.81	a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6	12.83	b	F값			1.60	
	미취학아동기	14	16.00	a	주거소유형태	자가	342	14.76	a
	초등교육기	52	14.82	ab		전세독채	49	13.83	b
	중등교육기	257	14.18	ab		전세(일부)	54	12.64	b
	대학교육기	103	14.12	ab		월세	21	11.66	c
	경제적회복기	34	14.23	ab	F값			15.53***	
F값			1.69						
소득자수	1인 이하	248	14.07	a	소득정기성	정기적	289	14.16	a
	2인	195	14.48	a		부정기적	177	14.48	a
	3인	20	14.80	a	F값			1.25	
	4인	3	15.33	a	소득액유동성	항상 같다	103	13.30	b
F값			1.03	대체로 같다		266	14.69	a	
				늘 다르다		97	14.18	a	
소득원천수	1가지	301	13.65	c	F값			8.52***	
	2가지	117	14.73	b					
	3가지 이상	48	17.10	a					
F값				33.68***					
재산소득유무	없음	352	13.85	b					
	있음	114	15.61	a					
F값				32.17***					

\*\*\*P<.001



조작하였고, 재산소득유무와 소득액유동성은 가변 수화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R-square증가분을 비교하여 보면, 최종 분석에서 이들 6개의 변수가 경제적 안정의 28.6%를 설명하고 있는데, 소득원천수의 설명력이 13.8%로 가장 크다.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면 표준화 β값으로 비교하여 소득원천수가 .306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는 소득의 다양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기춘(1991)의 주장을 강력히 입증해 준다.

학력은 6.9%, 주거소유형태는 3.6%, 소득액유동성은 1.8%, 직업지위는 2.4%의 설명력을 증가시키나, 최종분석에서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하면 주거소유형태, 직업지위, 소득액유동성, 학력의 순

서이다. 특히 주거소유형태는 .196으로 학력(.160)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주거는 내구소비재로서 사용가치와 아울러 자산가치를 갖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것은 재정상태에 대한 안정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3. 家計財政關聯 心理 및 行動特性과 그 影響 要因

1)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 특성의 수준  
조사대상자의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 수준은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압박감수준과 대처행동수준은 낮은 편이고,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재정만족도는 100점

표 4. 경제적 안정의 중회귀분석

투입변수	(1)	(2)	(3)	(4)	(5)	(6)
소득원천수	1.401*** (.371)	1.290*** (.342)	1.182*** (.314)	1.116*** (.296)	1.035*** (.275)	1.153*** (.306)
학력		.780*** (.263)	.654*** (.221)	.730*** (.247)	.469*** (.158)	.472*** (.160)
주거소유형태			.682*** (.200)	.713*** (.208)	.662*** (.193)	.671*** (.196)
소득액유동성@				.622*** (.137)	.806*** (.177)	.800*** (.176)
직업지위					.771*** (.191)	.751*** (.187)
재산소득유무@						.288 (.042)
상 수	12.191	9.197	10.873	9.471	8.959	7.294
R <sup>2</sup>	.138	.207	.243	.261	.285	.286
R <sup>2</sup> 변화분		.069	.036	.018	.024	.001

@dummy variable임 소득액이 고정적인 경우 0, 유동적인 경우 1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

\*\*\*P<.001

표 5.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 수준

	점수 범위	중간점	평 균	표준편차
경제적 압박감	22~110	66	51.98(34.1)	19.26
정신 건강	15~ 45	30	34.92(66.4)	5.77
재정만족도	7~ 35	21	20.71(49.0)	5.82
생활만족도	1~ 5	3	3.43(60.8)	0.83
대처행동	16~ 48	32	27.36(35.5)	3.34

\*( )속은 100점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환산시 49점으로 경제적 안정 48.8점과 같은 수준이다.

2) 변수에 따른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

표 6은 변수에 따른 집단별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의 분산분석이다.

(1) 경제적 압박감 :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주거소유형태가 셋방일수록 경제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압박감이 크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생활주기도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지만, 특히 미취학 아동기에는 경제적 압박감이 낮다. 소득원천이 다양할수록,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어느 정도 유동적일때 경제적 압박감을 낮게 느낀다( $P < .001$ ).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자산이 없고, 가족의 요구가 큰 집단에서 경제적 압박감을 크게 느낀다고 보여진다.

(2) 정신건강 : 가구주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P < .05$ ), 학력이 낮을수록( $P < .01$ )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가정생활주기( $P < .01$ )의 미취학 아동기에서 특히 정신건강 점수가 높다. 주거소유형태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P < .01$ ) 전세독채인 가계에서 자가인 경우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높은 것은 자가소유는 이동 특성상 쉽게 바꾸지 못하는데 비해 전세독채는 조건에 따라 비교적 쉽사리 바람직한 주거환경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 가치로 볼 때 만족도를 높혀주므로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신건강은 소득 자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재정만족도 : 학력이 높을수록( $P < .001$ ),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P < .001$ ), 자가소유일수록( $P < .001$ ) 재정만족도가 높다. 소득원천이 다양할수록( $P < .001$ ),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P < .001$ ), 소득이 약간 유동적일 때( $P < .01$ )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경제적 압박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생활만족도 : 직업지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 $P < .01$ ) 보이고 있다.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의 생활만족도가 높다.

(5) 대처행동 : 전반적으로 대처행동은 인구경제학적 변수 및 소득관련 변수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직업지위, 주거소유형태에서 유의한( $P < .05$ )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구경제학적 변수중 직업지위, 주거소유형태, 학력등이 가계재정상태와 관련된 심리 및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직업지위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깊은 상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재정상태와 관련된 심리 및 행동에 관계있는 변수로 작용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주거소유형태에서 자가소유와 비자가인 경우의 차이가 뚜렷하며 자가가 아닌 경우 임차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배순영(1991)이 소득수준과 임차유형은 관계가 있어서 경제부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생활주기는 정신 건강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의미있는 변수는 아니었지만 가정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 각 점수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Duncan test에서 특히 미취학아동기 가계가 대단히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향후 단계별로 사례수를 같은 수준으로 수집하여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자수는 소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점수를 보이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여러 가족원이 소득을 갖는 것은 각기 취업활동에 따른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계의 재정관련 특성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소득원천수가 다양할수록 경제적 압박감을 덜 느끼고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자수를 늘리기 보다 소득의 원천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가구주 연령과 가족원수, 소득의 정기성등은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에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었다.

표 6. 변수별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점수

변수	집단	N	경제적압박		정신건강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		대처행동	
			M	D	M	D	M	D	M	D	M	D
연령	-35세	43	51.48	a	36.60	a	22.06	a	3.72	a	27.74	a
	-40세	63	55.15	a	35.01	ab	19.69	a	3.39	b	28.01	a
	-45세	161	51.92	a	35.53	ab	20.77	a	3.49	ab	27.30	a
	-50세	130	51.39	a	34.17	b	20.70	a	3.36	b	26.97	a
	51세-	69	50.68	a	33.79	b	20.72	a	3.31	b	27.39	a
F값			0.54		2.60*		1.07		2.11		1.19	
학력	중학교이하	114	57.03	a	33.66	b	18.95	c	3.46	a	27.31	a
	고등학교이하	199	53.20	a	34.88	ab	20.48	b	3.38	a	27.69	a
	대학이상	153	46.65	b	35.92	a	22.33	a	3.49	a	26.96	a
F값			10.60***		5.08**		11.86***		0.88		2.13	
직업지위	무직	9	63.33	a	31.55	b	16.33	c	3.00	b	26.66	a
	생산서비스직	220	54.33	ab	34.54	ab	19.77	b	3.41	ab	27.70	a
	사무, 기술직	173	52.79	b	35.19	a	20.79	b	3.70	ab	27.38	a
	전문, 관리직	64	40.15	c	35.98	a	24.35	a	3.78	a	26.23	a
F값			10.94***		2.20		12.90***		4.99**		3.36*	
가족원수	3인 이하	54	51.92	a	33.42	b	20.38	a	3.38	a	27.59	a
	4인	144	52.75	a	35.17	ab	20.73	a	3.45	a	27.23	a
	5인	154	49.45	a	34.81	ab	21.00	a	3.35	a	27.13	a
	6인 이상	114	54.48	a	35.47	a	20.46	a	3.55	a	27.72	a
F값			1.61		1.67		0.25		1.29		0.86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6	53.50	a	31.16	c	19.00	b	3.50	a	27.33	a
	미취학아동기	14	43.57	a	38.78	a	24.50	a	3.92	a	27.14	a
	초등교육기	52	51.07	a	36.61	ab	21.76	ab	3.50	a	27.98	a
	중등교육기	257	53.28	a	34.91	b	20.39	b	3.44	a	27.37	a
	대학교육기	103	51.22	a	34.22	b	20.48	b	3.35	a	27.34	a
	경제적회복기	34	49.11	a	34.64	ab	21.00	ab	3.38	a	26.50	a
F값			0.98		3.37**		1.85		1.24		0.82	
주거소유형태	자가	342	48.88	b	35.27	ab	21.54	a	3.45	ab	27.07	a
	전세독채	49	53.85	b	35.93	a	20.75	a	3.57	a	28.38	a
	전세(일부)	54	63.53	a	33.07	bc	17.42	b	3.33	ab	27.87	a
	월세	21	68.42	a	31.61	c	15.66	b	3.19	b	28.33	a
F값			16.11***		5.21**		14.49***		1.35		3.43*	
소득자수	1인 이하	248	53.19	a	35.13	a	20.49	a	3.36	a	27.45	a
	2인	195	51.10	a	34.70	a	21.00	a	3.50	a	27.12	a
	3인	20	47.60	a	34.10	a	20.45	a	3.65	a	28.35	a
	4인	3	38.66	a	38.00	a	22.66	a	4.00	a	28.66	a
F값			1.29		0.62		0.40		2.01		1.11	
소득원천수	1가지	301	55.67	a	34.75	a	19.56	c	3.41	a	27.51	a
	2가지	117	48.06	b	34.89	a	21.65	b	3.41	a	27.23	a
	3가지 이상	48	38.45	c	36.08	a	25.68	a	3.64	a	26.72	a
F값			21.51***		1.10		27.85***		1.63		1.27	
재산소득유무	없음	352	54.88	a	34.89	a	19.90	b	3.45	a	27.45	a
	있음	114	43.04	b	35.01	a	23.24	a	3.40	a	27.08	a
F값			34.93***		0.04		30.23***		0.29		1.02	
소득징기성	정기적	289	52.93	a	35.26	a	20.96	a	3.46	a	27.50	a
	부정기적	177	50.45	a	34.36	a	20.31	a	3.39	a	27.12	a
F값			1.82		2.69		1.37		0.81		1.38	
소득액유동성	항상 같다	103	58.18	a	35.21	a	19.47	b	3.49	a	27.42	a
	대체로 같다	266	49.52	b	35.18	a	21.43	a	3.44	a	27.48	a
	달라다	97	52.17	b	33.90	a	20.08	ab	3.37	a	26.96	a
F값			7.73***		1.92		5.01**		0.55		0.86	

\*P<.05, \*\*P<.01, \*\*\*P<.001

4. 經濟的 安定과 家計財政關聯 心理 및 行動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들의 속성에 따라 집단을 재구성하여 하위변수에 따른 집단별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을 살펴보았다. 하위변수에 따라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표 7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소득관련 하위변수에 따른 집단차가 크다( $P < .001$ ).

경제적 안정점수와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는 표 8과 같다.

경제적 안정은 경제적 압박감과 강한 부적상관(-.643)을 가지며, 대처행동과도 부적상관을 갖는다

표 7. 경제적안정 하위변수에 따른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점수

변 수	집 단	N	경제적압박		정신건강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		대처행동	
			M	D	M	D	M	D	M	D	M	D
소득 적정도	1점	57	76.01	a	38.17	a	14.05	d	3.07	c	28.50	a
	2점	204	58.23	b	36.17	b	19.09	c	3.35	bc	27.73	ab
	3점	176	40.22	c	34.42	b	23.59	b	3.56	b	26.88	b
	4점	29	32.20	d	31.22	c	27.79	a	4.00	a	25.41	c
	F값			122.88***		15.38***		94.26***		10.82***		7.92***
재정 안전도	1점	31	75.48	a	29.03	c	13.71	d	3.00	b	28.19	a
	2점	189	60.86	b	34.09	b	17.83	c	3.26	b	27.89	a
	3점	213	43.48	c	36.17	a	23.33	b	3.61	a	26.95	ab
	4점	33	34.00	d	37.21	a	26.90	a	3.72	a	26.18	b
	F값			78.16***		19.12***		90.23***		10.68***		4.78**
소득 수준	-100만원	161	61.99	a	33.44	b	17.53	d	3.24	b	27.93	a
	-150만원	163	50.84	b	35.41	a	21.20	c	3.46	ab	27.63	ab
	-250만원	98	44.25	c	36.07	a	22.84	b	3.62	a	26.66	bc
	그 이상	44	36.86	d	35.97	a	25.84	a	3.65	a	25.81	c
	F값			35.42***		5.86***		40.33***		5.80***		6.74***
실업 경험 : 고용 안정성	3번이상(1점)	15	67.93	ab	31.06	b	15.93	b	3.06	a	28.00	a
	2번(2점)	9	71.11	a	30.66	b	16.00	b	3.44	a	28.66	a
	1번(3점)	49	56.65	bc	33.91	ab	19.16	ab	3.42	a	27.85	a
	없다(4점)	393	50.36	c	35.29	a	21.20	a	3.45	a	27.24	a
	F값			8.69***		5.03**		7.75***		1.05		1.15
재취업 가능성	1점	96	55.50	a	34.04	ab	19.40	b	3.33	b	26.93	a
	2점	131	56.74	a	35.74	a	20.19	b	3.42	ab	27.64	a
	3점	212	48.41	b	34.99	ab	21.35	ab	3.46	ab	27.35	a
	4점	27	44.51	b	33.55	b	22.92	a	3.66	a	27.55	a
	F값			7.85***		2.17		4.22**		1.27		0.87

\* $P < .05$ , \*\* $P < .01$ , \*\*\* $P < .001$

표 8. 경제적안정과 가계재정관련심리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

	경제적압박	정신건강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	대처행동
경제적안정	-.6432***	.2868***	.6414***	.2687***	-.2084***
경제적압박		-.3461***	-.7100***	-.3032***	.2722
정신건강			.4165***	.3453***	-.1600***
재정만족도				.4455***	-.2201***
생활만족도					-.1072*

\* $P < .05$ , \*\* $P < .01$ , \*\*\* $P < .001$

( $P < .001$ ). 경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압박감이 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처행동을 더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와는 정적상관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며 재정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일련연구들(Voydanoff et al : 1988, Voydanoff et als : 1989)과 같은 결과로서 생활의 질에서 경제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입증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이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 특히 가계재정관련 심리 및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검증해 보았다. 경제적 안정을 '일정한 수준의 가계재정상태의 지속'이라고 정의할 때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의 역점수로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안정은 소득특성, 교육, 직업지위와 주거소유형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고, 또한 경제적 안정은 경제적 압박감,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정신건강,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원의 성장 발달을 꾀하고 가족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의 경제적 안정은 개별 가계의 일부 속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중요한 영향력은 소득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소득의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유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의 고정적인 속성은 오히려 경제적 안정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즉, 소득은 가계가 직면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약간 유동적인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가구주 외의 가구원도 소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것이며, 특히 재산소득원을 갖는 것이 재정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높히는데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이 연구는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시도된 개괄적 연구이므로 명확한 이론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일부 특성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효과라고 본다. 앞으로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개념들의 정확한 정의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보다 정교한 척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 미취학아동기 가계는 특별한 현상을 보임으로써 다른 단계의 가계와 구별되고 있는데, 사례수가 14에 불과해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이 시기의 가계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다른 단계의 가계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가정형성기의 어려운 적응단계를 넘어서면서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기 시작하는 시기의 젊은층 가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호한 반응이라면, 이후 예상되는 부정적 양상으로 전환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민경(1984). 가계소득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숙이·문숙재(1988). 도시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1-24.
- 3)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4)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8.
- 5) 배순영(1991). 서울시 임차가계의 임대료부담과 가계경제문제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60.
- 7) 이기춘(1969). 가정의 경제제력이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 서울:교문사.
- 9) 어성립(1990). 노인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종혜·이기춘(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8, 37-46.
- 11)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임정빈·고보선(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13) 최은숙·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 소비자학연구 2(1).
- 14) Conger, R.D., Elder, G.H., Jr., Lorenz, F.O., Conger, K.J., Simons, R.L., Whitbeck, L.B., Huck, S.H. & Melby, J.N.(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15) Davis, E.P.,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16) Demo, D.H. & Acock, A.C.(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8.
- 17) Duncan, G.J. & Rodgers, W.L.(1988). Longitudinal aspects of childhood pover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007-1021.
- 18) Elder, G.H., Jr., Nguyen, T.V. & Caspi, A.(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19) Galambos, N.L., Silbereisen, R.K.(1987). Income change, parental life outlook, and adolescent expectations for job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41-149.
- 20) Hafstrom, J.L., Dunsing, M.M.(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119-132.
- 21) Harold-Goldsmith, R., Radin, N., Eccles, J.S.(1988). Objective and subjective reality : The effects of job loss and financial stress on fathering behaviors. *Family Perspective* 22, 309-325.
- 22) Hira, T.K., Fanslow, A.M., Titus, P.M.(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satisfaction in households.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07-138.
- 23) Kim, K.(1991). Economic security,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issertation in Ph.D., University of Illinois.
- 24) Larson, J.H.(1984). The effect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 in blue-collar families. *Family Relations* 33, 503-511.
- 25) Lempers, J., Lampers, D.C., Simons, R.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26) Liker, J.K., Elder, G.H., Jr.(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 in the 193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343-359.
- 27) McLanahan, S.S., Booth, K.(1989). Mother-only families ;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28) Pett, M.A., Vaughan-Cole, B.(1986). The impact of income issues and social status on post-divorce adjustment of custodial parents. *Family Relations* 35, 103-111.
- 29) Titus, P.M., Fanslow, A.M.,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30) Voydanoff, P.(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 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 273-288.
- 31) Voydanoff, P., Donnelly, B.W., Fine, M.A.(1988). Economic di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 : 545-564.
- 32) Voydanoff, P., Donnelly, B.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